

地名研究序說

沈 汝 澤

I

近來 韓國에 있어서도 人文社會科學系의 學問의 發展에 따라 지금까지 거의 學的 對象에 서 無視 되었던 地名에 關한 研究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 그간 地名에 對한 資料集도 몇 券 이 나와 있고 또 地名에 對한 研究 論著도 여러가지 側面에서 얼마간 나와 있다¹⁾ 筆者도 몇 年前부터 地名에 關心을 가져서 濟州島 地名을 中心으로한 地名研究의 論文을 몇 篇 發表한 바 있다. 이러한 研究를 해 나가면서 筆者가 느끼게 된 것은 아직 韓國의 學的 段階로 보아 地名 研究에 對한 序說의 研究 作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地名이란 果然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發生하여 어떻게 이름 지워지고 어떻게 變化되어 나가느냐, 그 本質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學的으로 研究하는 性格과 意義는 어떤 것이며, 學的 所屬은 어떻게 歸屬 시키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研究의 方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序說의 作業들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地名研究의 여러 가지 論文들은 그 方法에 있어서 試行錯誤를 이르는 例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地名研究의 序說의 作業을 먼저 試圖해야 할 必要를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地名의 概念, 發生 및 變化, 그리고 學的 研究의 意義와 性格 등에 대하여 筆者 나름대로 理論的 構築을 해 놓고 進行해 나가는 것이 좋은 길이라 생각되기에 本稿은 이러한 點을 試圖하고자 하는 것이 그 目的인 것이다.

1) 이를테면 한글학회 편 한국지명총람(1)(서울편) 1966 한글학회 刊, 素聖顯南國의 地名由來 1975 濟州民俗研究所 刊, 辛兌鉉 三國吏設 地理志의 研究

서울 字種社 刊, 등 單行本이 있고, 論文으로는 李汝柱 莞島地方의 地名巧 湖南文化研究 第4 輯 1966 全南大 pp.123~255 朴恩用 地名表記에 依한 舌·花의 古形推定 <杏丁 李商憲先生回甲記念論文集 1968.4 菊版 pp.161~214 朴炳采 古代三國의 地各語彙巧 白山學報 第5號 1968.12 pp.51~134 俞昌均 古代地名表記用字의 龍尾에 對하여 論文集(靑丘大) 4: 19-36'61 柳在泳 地名巧 嫩葉 3: 20-41'61 등이 있다. 이 論著들은 資料와 研究로 나눌 수 있는데, 그 研究는 主로 國語學的 側面에서 그 原型을 追求하는 傾向들이다.

I

地名이란 文字 그대로 말해서 땅의 地點마다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人間은 이 地球上에서 生活을 營爲해 오면서 이 땅을 利用하여 살아 왔다.

땅에 地名을 붙인 것은 人間이 붙인 것이다. 人間이 땅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生을 營爲하기 위하여 이 地點과 저 地點을 識別하기 위하여 붙여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많은 人間 가운데 「金돌쇠」와 「金돌쇠」 아닌 사람을 區別하기 위해서 「金돌쇠」라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自己라는 存在를 다른 사람과 識別하기 위한 記號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地點에 한 地名을 붙인 것은 바로 다른 地點과의 區分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記號로 나타낸 것임에 다름이 없다. 따라서 地名은 記號다.

이 記號는 地上의 地形 地物을 生活에 利用하기 위하여 生活의 必要上 붙여진 記號다. 人間이 地上에 生活하면서 그 地形을 利用하는데 서로 區分하고 識別할 必要가 없을 때에는 地名을 붙일 必要가 없고, 아무리 가까운 地點이라도 이것이 生活上 識別이 必要할 때에는 地名을 붙여서 識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記號는 言語로서 붙여진다. 다시 말해서 子音과 母音으로 分節될 수 있는 音聲을 가지고 그 音聲의 몇 개를 聯結시켜서 그것을 記號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地名은 記號임과 同時에 언어의 記號인 것이다.

記號는 一人만의 識別을 위하여 붙여질 수도 있다. 어제 보았던 저것과 이것을 區別하기 위해서 記號를 붙여 놓고 오늘 그것을 再次 보아서 識別하기 위하여 記號를 붙일 수도 있다. 이것은 一人을 위한 記號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人間은 地上에서 社會生活을 營爲하는 것이 다른 動物과 다른 根本적인 性格이기 까닭에 여러 사람 간에 이것 과 저것, 이 地點과 저 地點을 서로 識別하여 認識하도록 하기 위하여 붙여진 言語記號가 地名인 것이다. 그럼으로 여러 사람이 그 記號를 가지고 서로 識別하는 데 同意하지 않으면 그 記號는 成立되지 않는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그 言語 記號를 가지고 이 地點과 저 地點, 이 地形과 저 地形, 이 地物과, 저 地物을 區別하는데 서로 同意하여 그것을 利用할 때에 그것은 地名으로서 生命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地名이라는 記號는 社會的 契約物이다.

地名은 人間이 이 地上에서의 生活을 해 나오는 동안에 생겨진 것이다. 오랜 生活의 歷史 속에서 많은 地形을 利用하게 되면서 利用하는 地形 地物을 그 集團民 간에 서로 識別하기 위하여 記號로서 이를 區分하고 認識 하여서 生活의 混亂을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다. 人間은 역사적인 存在이기 까닭에 時代가 흐름에 따라서 그 契約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契約物이 달라지는 것은 時代的인 趨移와 그 생각의 變遷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까닭에 地名이란 記號는 社會的 契約物인 同時에 또한 時代的 產物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으로 地名은 生活上의 必要에서 붙여진 社會的 契約物이오 同時에 時代的 產物인 言語 記號다.

地名이 地上에서 生活을 營爲하는 人類의 生活上의 必要에서 붙여진 歷史的 社會的 所産인 記號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붙이는 動機는 實로 複雜 多樣하다. 이것은 生活環境으로서의 自然環境과 文化環境들에 依해서 複雜 多樣하게 붙여지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初期의 狩獵採集時代에는 人類의 生活의 舞臺는 山野나 山岳 地方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때에 利用하는 地上은 山이나 들이되기 까닭에 識別의 必要는 山이나 들만이 될 것이요, 거기에 地形 地物의 識別과 地點의 區分을 위한 記號를 붙일 必要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럴 때의 地名은 山野에 發達하게 될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狩獵 採集 時代에 붙여지는 地名은 狩獵 採集이라는 生活 形態의 必要에 따라서 붙여지게 마련이다. 가령 狩獵을 하는데 動物이 잘 나타난다든지 또는 도망가는 곳이라든지 이것을 잡기 좋은 곳이라든지 하는, 그런 技術的인 면에서 利用되는 地形들에게 地名이 붙여진다. 그래서 「사냥 동산(南濟州郡 城山面 蘭山里 所在)」「평망보는동산(南濟州郡 中文面 所在)」「사슴머들왓(濟州市 吾登洞 所在)이니 하는 地名들이 붙여지게 마련이겠고,²⁾ 採集經濟時代에 있어서는 採集 植物이 많이 나는 곳을 特別히 指稱하는 記號가 必要하기 까닭에 이런데는 「밤왓(南濟州郡 城山面 蘭山里 所在)」「블레오름(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감낭굴(南濟州郡 城山面 蘭山里 所在)이니 하는 地名들이 많이 붙여지게 되고, 거기에 採集生活을 하는 사람들이 地點 識別을 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土地 利用은 매우 曠闊한 地域을 表面만 皮相的으로 活用하기 까닭에 地名이 붙여지는 것은 넓은 地面에 아주 띄엄띄엄 疏忽하게 붙여지게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山岳을 숲을 굽는 곳으로 利用하게 될 때에는 또 地名은 새로운 方式으로 붙여지 게마련 일 것이다. 숲의 資料가 되는 나무가 많은 곳에 識別의 눈이 가고 숲을 굽는 굴이 만들어진 곳에 識別할 記號를 붙일 必要가 생기고,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사는 곳에 識別의 地名을 붙일 必要가 생기게 된다. 이럴 때에 그 集國民들은 「숲곳:〈숲 굽는 樹林〉(南濟州郡 中文面 河源里 所在)」「막수왓도:〈막수〉는 幕舍의 音變〈왓〉은 밭〈도〉는 入口의 뜻(濟州市 老衡洞 所在)」라든지 어떠한 地名들을 붙여서 이를 識別하게 마련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一步 時代가 나아가서 農耕生活로 그 產業形態가 바뀌질 때에는 農耕에 알맞는 土地 利用에 따라 地名은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때는 肥沃한 土地를 따라 이를 開墾하게 되고 거기에 씨를뿌려 農事를 거두게 되기 까닭에 사람들의 土地 利用은 細分

2) 「사냥동산」「평망보는동산」「사슴머들왓」등이 만드시 狩獵時代에 붙여진 地名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後代의 것일지라도 狩獵을 위해서 地上을 利用하는 데서 붙여진 地名임에는 틀림이 없다. 만일 狩獵時代에 地名이 붙여졌다면 이런 식의 이름이었으리라는 것은 充分히 생각할 수 있다.

化 된다. 細分化 되면 같은 面積에 地名은 더욱 細分化되게 마련이고 그렇게 해서 田地名은 점점 細分化 되어서 稠密하게 붙여지게 마련이다. 田地名이 붙여지는 데는 여러 가지 多樣的 動機에서 붙여질 것이다. 地形 地物을 보아서 그것에 맞게 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누구나 제일 처음 占有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어느 占有한 사람의 姓氏를 붙여서 「안씨터 (濟州市 老衡洞 所在)」나 「양씨터 (濟州市 老衡洞 所在)」나 「안장의밭 (濟州市 老衡洞 所在)」이니 「웃가락이베밭 (濟州市 老衡洞 所在)」이니 「입관이밭 (濟州市 老衡洞 所在)」이니 「고벨감밭 (濟州市 老衡洞 所在)」이니 하는 식으로 붙일 수도 있다. 거기에 어떤 建物이 있다면 「서절터 (南濟州郡 中文面 貌里 所在)」라든지 「원집터 (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라든지 「질왓 (濟州市 老衡洞 所在)」이라든지 하는 地名도 붙게 마련이고, 어떤 무덤이 있었다면 「왕자무덤 (南濟州郡 中文面 河源里 所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무덤 이름을 따서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特異한 바위나 고개가 있다면 바위나 고개를 利用해서 「거북바위」³⁾ 「벼락바위」⁴⁾ 「너럭바위」⁵⁾ 「지경바위」⁶⁾ 「차일바위」⁷⁾ 「절바위」⁸⁾ 「치마바위」⁹⁾라든지 「버리고개」¹⁰⁾ 「조새고개」¹¹⁾ 「박석고개」¹²⁾ 「돌꽃이고개」¹³⁾ 「느티나무고개」¹⁴⁾ 「밤고개」¹⁵⁾니 하는 바위의 地名도 붙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初當 붙여진 이름들이 그대로 變化 없이 繼承되어 나가리라는 것은 期待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生活은 그 時代環境에 따라 여러 가지로 變貌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人間은 낳고 죽고 그 子孫이 또 낳고 죽고 하면서 世代가 變遷돼 나간다. 그에 따라서 前에 所有했던 사람이 죽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所有주가 바뀌어지고 거기에 利用하던 그 地點이 다른 方向으로 利用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地名은 또한 變遷될 수가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들판이었던 것이 農地로 開墾되면서 이름은 바뀌질 수 있고, 처음에 김씨가 집을 지어 살 때에는 「김씨터」가 되었다가 다음에 양씨가 그것을 사 들이고 살게 되면 「양씨터」로 이

3)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舊基洞 所註 地名. (한국지명총람(I) 서울편 한글학회 1966)

4) 서울特別市 麻浦區 望遠洞 所在 地名. (上掲書)

5) 서울特別市 麻浦區 阿峴洞 所在 地名. (上掲書)

6)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付岩洞, 弘知洞 境界 所在 地名. (上掲書)

7)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武溪洞 所在 地名. (上掲書)

8)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北阿峴洞 所在 地名. (上掲書)

9) 서울特別市 城東區 上往十里洞 所在 地名. (上掲書)

10)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新村洞 所在 地名. (上掲書)

11)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新營洞 所在 地名. (上掲書)

12)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葛峴洞 所在 地名. (上掲書)

13)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驛村洞 所在 地名. (上掲書)

14) 서울特別市 城東區 文井洞 所在 地名. (上掲書)

15) 서울特別市 城東區 栗峴洞 所在 地名. (上掲書)

름은 바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別將職을 가진 사람이 거기 와서 집을 지어 살았다면 「별장밭」으로 바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歷史的인 變化에 따라서 地名은 또한 바뀌어지기도 마련인 것이다.

이런 地形의 利用面이라든지, 利用의 變遷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지, 歷史의 變遷에 따라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音韻의 變遷에 의해서 地名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음운변화에 의해서 地名이 바뀌어지기 까닭에 地名 變化의 原因은 生活의 變遷에 의한 變化, 歷史의 變遷에 의한 變化, 國語 음운의 變遷에 의한 變化 등 갖가지 變化 양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거듭되면서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地名이기 까닭에 그 地名의 原型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原型을 推測해내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地名研究의 첫째 作業은 바로 이러한 地名의 變遷過程을 溯及해서 그 原型의 歷史를 再構해내는데 焦點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地名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要因에 의해서 變化해 나간다. 이것이 민일 무턱대고 變化해 나간다면 그 地名의 原型을 追究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일이 된다. 그러나 地名에는 踏襲性이라는 것이 있다. 일단 하나의 地名에 그 社會 集團民들의 契約物로서 하나의 音聲 記號로서 이름이 붙여진다면 그것은 時代가 變化해도 그대로 踏襲하여 使用하는 性格이 있다. 본래는 그 지어진 이름의 動機와 理由가 明確해졌지만 오랜 歲月을 踏襲해 使用해 오는 동안에 地名을 나타내던 言語의 意味가 忘却해져 버려서 모르는 境遇가 또한 많다. 이것은 音韻法則이나 歷史的인 生活史를 거슬러 올라가 追求해 나갈 때에 그것을 再構할 可能이 全然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學問의 意味가 있는 것이다.

또한 地名에는 擴充性이라는 本性이 있다. 본래는 산을 利用하면서 그 산에 이름을 붙여 놓는다. 그것은 그 산 밑에 사는 集團民들의 契約에 의해서 하나의 音聲記號로서 그 산을 識別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다. 그런데 그 附近에 사는 集團民들이 增加하고 따라서 附近에 部落이 形成됨에 따라 산의 이름은 그 周邊의 이름으로 擴充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오늘날 濟州 地名에서도 몇 가지 볼 수 있다. 가령 「성산(南濟州郡 城山面 城山里)」 「난산<본래 남리>(南濟州郡 城山面 蘭山里)」 「수산<본래 물기>(北濟州郡 涯月面 水山里)」 「가시오름(南濟州郡 表善面 加時里)」 「눈리(北濟州郡 朝天面 臥山里)」 이러한 것들은 산의 이름을 指稱하던 言語記號가 그 周邊 一帶의 이름으로 擴充되고 또 그 산의 周圍에 이룩된 部落의 이름으로 擴充되어 나간 것이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部落의 이름이 본래는 산의 이름이었다는 그 原型으로 追求해 올라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내를 기준으로

해서 部落名이 形成된 것도 없지 않다. 「알므드내 (濟州市 寧坪洞 所在)」 「웃므드내 (濟州市 龍崇洞 所在)」 「무드내 (濟州市 奉蓋洞)」 「웃내기 (南濟州郡 城山面 新豐里)」 「드래물 (南濟州郡 中文面 廻水里)」 「창고내 (南濟州郡 安德面 倉川里)」 「도그내 (濟州市 外都洞)」 이라 한 것은 본래 내의 이름이었었는데 그것이 그 周邊의 이름으로 擴充이 되어 나가고 끝내는 그 周圍에 이루어진 部落의 이름으로까지 쓰이게 된 것이다. 또 물의 이름 곧 池沼名이 部落名으로 된 것도 없지 않다. 「억물<億水洞>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所在)」 「두리물<斗伊洞> (南寧州郡 表善面 加時里 所在)」 「물래물<沙水洞> (濟州市 道頭洞 所在)」 「냇물<面水洞> (北濟州郡 舊左面 下道里 所在)」 이런 것은 본래 물 이름(池沼名)이었지만 그 周邊의 이름으로 擴充이 되고 部落名으로까지 되어 使用하게 된 것이다. 이 以外로 田地名이 바로 部落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浦口의 이름들이 바로 部落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다. 「백개 (濟州市 梨湖洞)」 「뒷개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건들개 (濟州市 健入洞)」 「가물개<甘水洞> (濟州市 三陽洞 所在)」 「실개 (濟州市 三陽洞 所在)」 「배드린개 <船入洞> (北濟州郡 舊左面 坪垈里 所在)」 「큰개 (南濟州郡 中文面 大浦里)」 등은 浦口名의 例이고, 田地名으로는 「모듬밭<合田洞> (北濟州郡 舊左面 細花里 所在)」 「베리밭<硯田洞> (濟州市 我羅洞 所在)」 「장구밭<長久洞> (濟州市 我羅洞 所在)」 「도련드르 (濟州市 道連洞)」 「가른모살 <玄沙洞> (濟州市 梨湖洞 所在)」 「숯밭<蘆田洞> (濟州市 梨湖洞 所在)」 「큰담밭<大擔洞> (濟州市 我羅洞 所在)」 「간드락 <看月洞> (濟州市 我羅洞 所在)」 「황수밭<禾秀洞> (濟州市 禾北洞 所在)」 「아홉귀밭 <九耳田洞> (濟州市 吾羅洞 所在)」 「벵디가름<坪垈洞> (南濟州郡 古城里 所在)」 등 例는 許多하다. 이런 것은 生活이 어디에서 展開되어 나갔었느냐, 하는 것이 그 地名을 붙이는 原因이 되었고 그것이 그 周邊으로 擴充되어 나가서 及其也는 部落名으로까지 形成되어 나간 것을 意味해 주는 것이다.

地名研究는 이러한 것을 遡及해 나갈때 地名의 原型을 찾아낼 수 있고, 生活의 變遷史를 再構成해 낼 수 있으며, 生活形態의 變化過程과 또 開墾의 歷史的 事實의 具體的인 變化를 이 地名을 通해서 再構成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地名의 命名 動機에 보면 그 地形 地物이 하나 밖에 없을 때에는 이것을 識別하는 두개의 이름을 붙일 必要가 없을 때가 있다. 가령 한 地域에 蜂물이 하나일 境遇 그것은 「통물」이라는 普通名詞로 그 地形 地物을 누구에게나 識別하는 記號로서 通用할 수 있는 것이기 까닭에 무슨 통물하는 慣用語를 거기 붙일 必要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牛島 같은 데서 본다. 통물이 하나 밖에 없는 牛島에서는 「통물」이라 하면 다른 통물은 가르키지 않고 牛島民이면 누구나 그 통물을 識別할 수가 있다. 산이 하나만 있는 閉鎖된 地域에서는 산이라는 이름으로서 그 識別의 記號는 充分하다. 만일 산이 둘이 있을 적에는 東과 西에 있다면 「동쪽산」 「서쪽산」이라든지 아니면 「높은산」 「낮은산」이라든지 어떤 이름으로써 그 산 두개를 識別해 버리면 그것으로서 그만이다. 여기에

그 地名이 붙여진다는 것이 生活의 必要에서 생긴 識別的 記號라는 것을 다시 한번 再確認하고 切實하게 認識할 수가 있는 것이다.

IV

言語는 一種의 記號다. 그러나 言語라는 恣意的인 記號다. 民族에 따라서 어떠한 音韻에 어떠한 概念을 結付시키는 必然的인 因果關係가 없는 것이 言語다. 이를테면 하늘의 太陽을 놓고 「해」라 하는 우리나라, 「희(hi)」라고 하는 日本이나 「선(sun)」이라고 하는 英國이나, 그것은 그 民族이 恣意的으로 그 音韻에 그 概念을 結付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 여기에는 그 命名이 되는 學的인 根據, 다시 말해서 命名의 因果 原則을 論理的으로 찾아 낼 수가 없다. 이것이 言語의 記號的 屬性이다. 그러나 地名의 命名에는 다 그만 그만한 理由가 있어서 거기에는 全然 恣意的인 記號가 되지 않는다.

地名을 붙이는 데는 맨 먼저 地形 地物을 識別하는 普通名詞가 그 根幹이 된다. 우리가 사는 땅은 起伏 深淺이 多様하다. 或은 높이 솟아오른 곳도 있고 평평하고 넓은 곳도 있으며 알게 되어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곳도 있다. 人間은 이 地勢의 생김새를 잘 觀察하고 識別해서 이에 모두 區別하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산, 들판, 못, 내, 강, 웅덩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普通名詞다. 그런데 人間의 觀察은 纖細하여서 높이 솟아오른 地形도 그 높낮이에 따라서 「산」이니 「오름」이니 「언덕」과 같이 區分했고, 알게 패인 물이 고인 곳도 大小深淺에 따라서 소, 못, 늪과 같이 細分해 나갔으며, 또 大小 長短에 따라서 강, 내, 개울, 시내와 같이 細分해 갔다. 이 分類는 地勢를 基準으로 하여 나눈 것이다. 이 分類의 細目을 概括하면 山岳名, 河川名, 池沼名, 海地名의 項目을 얻게 된다. 이것은 地形을 통한 地名의 基礎的인 分類方式이다. 한편 人間은 이 地名을 여러가지로 利用하면서 生活을 營爲해 왔다. 우리 나라와 같은 農耕文化 民族은 主로 平地에 居住 定着하고, 이 平地를 밭으로, 논으로 開拓하고, 開墾이 不適合한 곳은 家畜의 牧養地로 또는 林野로 利用했다. 그리고 生活의 便宜를 위하여 道路를 뚫고 住宅이 增加함에 따라 하나의 部落이 形成되기에 이르렀다. 그 部落이 海邊에 位置하였을 境遇에는 漁業을 겸하여 하게 되어 船泊의 出入口로 海岸線의 屈曲을 利用하게 되니 浦口니, 港口니, 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地形 地物을 그 利用의 性質에 따라 각각 이름을 붙여 갔다. 이들중 山岳地, 논, 밭, 임야, 목야등 이름은 田地名이라 概括할 수 있고 나머지는 道路名, 浦港名으로 分類해도 좋다. 이것은 바로 利用地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行政이 점점 發達되어 가서 中央集權의 管轄에 所屬되게 됨에 따라서 部落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行政區域名으로 또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地名은 地形地名, 利用地名, 包括地名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包括地名에

는 部落名과 行政區域名이 끼어 들게 마련이다.

이것은 바로 地形 地物을 人類가 觀察하고 그것을 分類하는 識別意識 곧 地形 地物에 觀察의 眼目이 結付된 分類지만 이러한 山이니, 들이니, 오름이니, 언덕이니, 소, 못, 늪, 웅덩이, 내, 임야, 목야, 같은 것은 단지 地名을 만들어 내는 根幹 成分에 지나지 않는다. 山이 두개 있을 때, 동네가 두개 있을 때, 발이 여러개 있을 때, 못이 여러개 있을 때는 각각 이것을 識別하는 記號를 마련해야 하기 까닭에 거기에는 이것을 識別하는 識別要素(이것을 修飾要素라고 해도 좋다)를 더 붙이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발을 일컫는데 언덕 위에 있는 발이면 「등산밭(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 솔대가 서 있는 발이면 「솔대밭(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 넓은 길 옆에 있는 발이면 「너븐길밭(南濟州郡 中文面 回水里 所在)」 닳나무가 서 있는 발이면 「닥밭(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 이런 식으로 각각 그 修飾要素를 붙여서 이것을 識別하는 記號를 만들게 마련이고, 山岳이면 「불래오름(南濟州郡 中文面 河源里 所在)」 「큰사스미(南濟州郡 表善面 加時里 所在)」 「괴소리오름(北濟州郡 朝天面 咸德里 所在)」 「소머리오름(北濟州郡 舊左面 演坪里 所在)」 「돛오름(北濟州郡 舊左面 松堂里 所在)」 「홍붉은오름(北濟州郡 朝天面 橋來里 所在)」 「붉은오름(濟州市 奉蓋洞 所在)」 식으로 그 山岳의 모양이나 빛깔이나 位置나 무엇인가 識別하기 쉬운 特徵的인 것을 가지고 集團民들의 契約이 쉽게 成立될 수 있는 修飾要素로 해서 地形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내인 境遇에는 部落의 앞에 있으면 「앞내(南濟州郡 中文面 回水里 所在)」 동쪽에 있으면 「동내(濟州市 老衙洞 所在)」 서쪽에 있으면 「첫내(南濟州郡 南元面 南元里 所在)」 넓은 내면 「너븐내(南濟州郡 中文面 貌里 所在)」 그것이 두개로 갈려져 나갔을 적에는 「가린내(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으면 된다. 가령 물의 이름이면 안쪽에 있는 물이면 「안소못(南濟州郡 中文面 河源里 所在)」 바깥쪽에 있으면 「밖소못(南濟州郡 中文面 河源里 所在)」 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가령 어떠한 언덕이나 동산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을 區分 識別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일 境遇, 만일 그것이 狩獵에 利用되는 곳이라면 평을 잡는데 거기에 앉아서 망을 잘 보는 동산인 경우 「평망보는 동산(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 거기에 무슨 들무더기가 많이 깔려 있는 동산이면 「서덕동산(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두 개를 識別할 수도 있고, 거기에 나무가 茂盛했다면 그 나무 이름을 붙여서 「엄남마루(南濟州郡 中文面 河源里 所在)」 「참남동산(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 식으로 이름을 붙여도 되는 것이다. 산마루가 둘러 있는데 거기에 어느 마루에는 팽나무가 茂盛히 서 있다면 「폭낭마루(南濟州郡 中文面 河源里 所在)」 이렇게 이름을 붙여 區分을 하고, 만일 거기에 솔대가 서 있다면 「솔대마루(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所在)」 이렇게 이름을 붙여 區分해도 되는 것이다. 結局 이것은 그 地名을 붙이는데 生活的 識別要素의 記號라는 그 本質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問題는 이러한 여러가지 산, 오름, 언덕, 마루, 내, 못, 웅덩이, 시내, 개울, 포구 이런 것들이 많을 때에 그것을 識別하기 위해 붙이는 修飾要素를 무엇을 가지고 記號化 하느냐 하는데 있다. 그것은 그 地域 住民들의 生活 環境과 歷史 生活에서 가장 關心 있었던 일들을 거기에 利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것을 잘 分析한다면 거기에는 그 住民 生活의 歷史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反映되는 것이 되겠으므로 그것을 通해서 生活史가 再現될 수 있을 것이다. 地名 研究의 또 하나의 目的은 이처럼 住民의 生活의 歷史를 再構하는데 그 意味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여러 개의 地點을 識別하기 위하여 地名을 붙여 가는데는 그 國家의 言語의 構造原理를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國家의 言語 構造原理에 알맞게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住民들이 通用이 되지 않을 것이고 通用이 되지 않을 때 契約性은 成立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그 地名은 바로 그 國語의 構造原理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보면 그 地名의 分析을 通해서 그 國家의 言語의 語源을 分析해 낼 수가 있고 또 國語의 構造의 原理와 變遷過程을 分析해 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地名 研究는 國語學의 研究에 한 方便도 되고 補助科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V

위에서 몇 번 말한 바와 같이 地名은 生活의 必要에서 붙여진 地形 地物의 言語的 記號다. 그것은 生活의 歷史에 있어서 生業의 形態, 住民의 移動, 歷史의 變化, 文化의 變遷 등 갖가지 要因에 依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變化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原理가 있고 變遷의 法則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研究하므로써 그 根源의 地名을 再構해 낼 수 있고, 生活史를 엮어 낼 수 있고, 思考方式을 再現해 낼 수 있고, 오늘에 이르는 文化의 變遷을 再構해 낼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地名을 通한 文化의 歷史的 週及 研究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地名의 研究는 結局 民俗學의 分野가 되는 것이다. 民俗學을 現存 傳承 殘存資料를 蒐集 分析 比較해서 古代生活과 精神史를 究明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地名이라는 傳承 資料를 通해서 이것을 比較 分析하므로써 그 鄉土의 生活史, 그 民族의 精神史, 그 民族의 生活史를 再構해서 오늘의 民族을 알고 내일의 民族文化를 建設해 나가는데 그 本意가 있는 것이겠으므로 地名研究는 民俗學의 一分野가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地名研究는 民俗學에 있어서도 特別히 地名이 言語로 이루어진 記號라는 점에서 言語傳承分野의 命名法 研究에 所屬 된다. 그러나 民俗學이라는 것이 完全 獨立된 科學일 수 있으나 하는 때는 아직도 疑問이 있다. 民俗學은 여러 가지로 利用이 될 수 있다. 地名 研究도 民俗學의 言語傳承分野의 研究임에는 틀림이 없지마는 이것은 文化史 研究의 資料로서

用이 될 수 있고, 地理 研究의 資料로서 活用이 될 수 있고, 歷史 研究 資料로서 活用이 될 수 있고, 經濟史 研究의 資料로서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文化史學의 한 補助科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地名이 言語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記號라는 면에서 그 國語의 構造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까닭에 이 地名의 構成研究는 바로 言語構造의 研究도 될 것이기 까닭에 이것은 言語學의 一分野도 될 수 있고, 古代語의 再構를 하는데 한 補助 分野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地名이 한 民族 곧 單一民族의 生活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單純한 民俗學의 領域이 되지만 여러 民族의 移動과 文化의 移動에 따라서 地名이 形成되고 變化되었다고 할 때에는 學的 領域은 더 넓어진다. A民族이 붙여진 地名에 B民族이 들어와 地名을 붙이고 또 A民族이 돌아와서 그 地名을 바꾸어 놓기도 할 것이고, C民族이 들어와서 새로운 그들 나름대로의 地名을 붙여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에는 그한 地域의 地名에는 여러 民族의 言語 構造와 歷史와 生活史와 文化의 移動이 거기에 그대로 層積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明確히 分析해서 分類하고 그 變化 過程을 深求해 나간다는 것은 民族과 人類文化의 傳播과 移動을 캐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方面으로 展開되어 나갈 때 地名은 文化人類學의 한 分科도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地名의 研究는 쉬운 것 같 으면서도 無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나라는 口傳으로만 傳해 내려 오든 文化 要素들이 高麗時代에 이르러 三國史記 三國遺事 및 其他의 書籍에 여러가지 說話와 民間의 生活 및 歷史的인 事實들을 記錄해 놓았다. 거기에는 수많은 地名들이 記錄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 地名은 文字로 記錄되어 있지만 當時 우리 文字가 없었기 까닭에 漢字를 가지고서 表記해 놓고 있다. 그 漢字는 우리의 音韻을 그대로 表記할 수 있는 文字가 的確한 것이 없기 까닭에 그 地名들이 本來 어떠한 發音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地名은 새로 創作해 붙인 것도 있고, 本來 純粹 우리 言語로 되어 있는 것을 借字해서 記錄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거의 풀 수 없을만큼 본래의 音韻과 距離가 먼 文字를 가지고 表記해 놓은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을 풀어 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解明하지 못하는 文化史의 一部分을 明確히 풀 수 있는 資料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地名은 本來부터 純粹 우리 말로 불리워 왔었지만 近來에 地圖를 만들고, 行政이 發達하면서부터 純粹 우리 말의 地名을 漢字로 表記할 必要가 생겨서 漢字化되면서부터 그 본 이름들을 漢字式으로 많이 바뀌어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原名을 찾아 내고 이것을 分析해 낸다면 그 間의 우리 生活史가 그대로 明確히 밝혀질 수 있는 要素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結局 우리 地名을 歷史的인 側面에서 研究하는 方法이 될 것이다.

한편 地名 研究는 歷史的인 側面과는 全然 다른 角度로 機能的인 면에서 研究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한 地域의 住民이 얼마만큼의 地域을 生活 領域으로 삼고 거기에 어떠한 地名

들을 붙이고 있는가, 얼마나한 넓이에 얼마만큼 많은 地名들을 붙이고 있는가, 어떠한 데 많은 地名을 붙이고 어떠한 데 덜 붙이고 있느냐, 이런 것은 그 生活의 必要에서 붙여진 것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러한 것을 調査 分析하고 보면 그 生活과 地名과의 機能 關係가 明確하게 들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生活에서 地名의 役割이 어떠한 것인가를 理解하는 것이 되며 生活에 있어서의 地名의 機能의 研究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人類學的 研究라 할 수가 있다.

地名에는 여러 가지 傳說이 붙을 수 있다. 그것이 所謂 地名傳說이라는 것이다. 地名傳說은 어떠한 自然的인 素材를 가지고 說明하는 것도 있고, 歷史的인 事件을 가지고 說明하는 것도 있다. 이것은 事實인 것도 있고, 半事實인 것도 있고, 純全히 想像力을 通해 이루어진 것도 있다. 事實이든 半事實이든 想像의 所産이든 간에 그 地形에 그러란 이야기들을 붙여 놓은 것은 그 地方에 사는 地域 住民들의 文學的인 想像의 所産이다. 이러한 地名傳說을 通해 서 그 地域 住民들의 想像力과 生活의 꿈, 그리고 自然과 歷史와 人間 生活을 살피는 눈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地名 研究는 바로 人間의 本性和 精神의 研究에 接近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地名 研究의 갖가지 側面을 생각할 때에 地名 研究의 方法은 단지 言語學的인 側面에서 그 接尾辭의 統計로 地名 形成의 原理를 追究해 내는 것이 全部가 아니고, 地名을 通해서 生活의 歷史와 文化의 變遷과 民族의 移動과 外來 文化의 接觸과 思考方式의 變遷과 生活의 꿈의 變遷등을 찾아 내는 것이 重要하다. 그것은 民族의 根本的인 精神을 파헤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地名 研究의 方法은 단지 國語學的 補助的인 方法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文化史學的 民俗學的 人類學的인 넓은 視野에서 綜合的으로 이것을 다루어 나가야 하겠고, 그것의 活用은 各 學問의 領域에서 効用있게 다루어 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Summary—

An Introductory Study on Place Name

by Shim yeo-taek

1. The name of a place is a sign of language to divide and discriminate several spots for the necessity of life. The sign is the social, covenanted and periodic product.
2. The place name is formed and changed by the several life environments. The reason of the change is that life, history, language phonology and letter use are changing.
3. To find out the original form through going back to the past of the process of the change is to examine the change of life and language, and transmission movement of the people and culture.
4. As for the study of the place name, we can study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life and place name, and study the literal imagination of the inhabitants through the legends.
5. As previously stated, the study of the place name must be synthetically dealt with wide eyes through the study of the national language, folklore, anthropology and literature.